

#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

– 제주대학교 『통일교육론』 수업설계안을 중심으로

박성근\*\*\*

- I. 머리말
- II.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의 교육적 근거
- III.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의 적용 방안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있다. 제주 지역은 과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시초격인 감귤 보내기 사업이 진행되었던 만큼 평화·통일의식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과로 새롭게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지역 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 역시 지역 기반의 평화·통일교육인 ‘제주형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제주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수

\* 이 논문은 2022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22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평화통일포럼 주최 제주형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워크숍 “제주형 평화·통일교육 2.0-제주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도전 전문가 세션 I-발제Ⅱ”에 발표한 원고 「제주형 대학 평화·통일교육의 적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sgpark@jejunu.ac.kr

업설계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 기반 통일교육의 흐름에 부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통일교육에 있어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구성주의 및 퍼실리테이션과 같은 대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철학적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의 후반부에는 제주가 가진 역사자원, 관광자원,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지위 등과 같은 독특한 자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주제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계획안을 제안할 것이다.

주제어 : 제주형 통일교육, 대학 통일교육, 구성주의, 퍼실리테이션, 남북교류 협력

## I. 머리말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측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에는 자연스럽게 평화프로세스가 형성되었다. 4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6월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합의, 9월 평양공동선언 과정을 거치며 한반도의 봄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언들을 통해 남북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각종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등과 같은 체육교류,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과 같은 산업교류,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류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사업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부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된다.<sup>1)</sup> 이러한 개정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9.)법률 제

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교류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은 물론, 지역의 고유한 산업과 문화에 바탕을 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제주에서도 제주만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함양에 관한 제언들이 각종 포럼 등을 통해 제안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평화통일포럼이 주최한 ‘2022년 제 1차 제주평화통일포럼’에서 제주대 변종현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을 주장하면서 소위 ‘제주형 통일·평화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sup>2)</sup> 또한, “2022년 제 2차 제주평화통일포럼’에서 제주통일미래연구원 고성준 원장은 과거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사업과 같은 전통을 계승한 제주도형 남북교류협력 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교류협력 전문 인력 및 연구자 양성, 남북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협력 사업의 확산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sup>3)</sup>

이러한 제언들을 통해 볼 때, ‘제주형 통일교육’은 최초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평가받는 감귤 보내기 운동의 전통을 되살려 남북교류협력 2.0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제주 지역 관련 연구자들의 새로운 통일교육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형 통일·평화 교류 및 의식 함양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형 통일교육의 대상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학생들에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제주 지역 대학으로는 제주대학교, 제주 국제대학교, 제주 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이 있으나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은 오직 제주대학교에서만 이루어지

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2) 한라일보 기사, “고유성 반영한 제주형 통일·평화교육 이뤄져야”, 2022. 05. 02.

3) 한라일보 기사, “대북·통일 정책속 제주 역할은?”, 2022. 08 12.

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제주대학교 초등윤리전공의 ‘초등 통일교육론’, 윤리교육과의 ‘국제문제와 남북한 사회연구’, ‘통일교육론’, 정치외교학과 의 ‘북한 정치와 외교’, ‘평화리더십’, 교양과정에서 ‘제주 4·3의 이해’, ‘남북한 사회제도의 이해’ 등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sup>4)</sup> 이 중에서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윤리교육과 『통일교육론』 수업에 적용될 제주형 통일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차 제주 지역의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를 지니는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후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이 실시되었을 경우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변화의 추이를 점검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에 의거, 새로운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의 교육적 근거와 제주 지역 대학생이 추구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한 후, 이에 부합하는 대학생 통일교육의 수업설계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Ⅱ.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의 교육적 근거

### 1.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 : 사회적·교육적 변화의 반영 필요성

현대 사회는 초복합체, 초연결성의 4차 혁명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특징에 따르는 교육 방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분명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함께,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 시대에 들어선 만큼 이에 적합한 통일교육의 방식이 요구

4) 박성근, 「제주지역 청년세대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제주도연구』 58, 제주학회, 2022.

되고 있다.<sup>5)</sup>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겪었던 이념적 대립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개성을 방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온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청년세대는 우리 남한 선수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본 반면, 기성세대는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였다. 즉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기성세대는 남북간의 갈등을 완화해줄 기회로 여겨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던 반면, 청년세대는 민족이나 국가적 공익보다는 공정성의 문제로 여겼다는 점에서 북한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두 세대 사이에 관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6)</sup> 이러한 세대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들을 위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교육적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OECD 회원국 2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의 주요한 핵심은 학생이 행동주체가 되어 동료와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행복(well-being)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즉, OECD 교육 2030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여 개인과 사회의 웰빙(individual and collective well-being)에 기초한 공동의 미래사회를 구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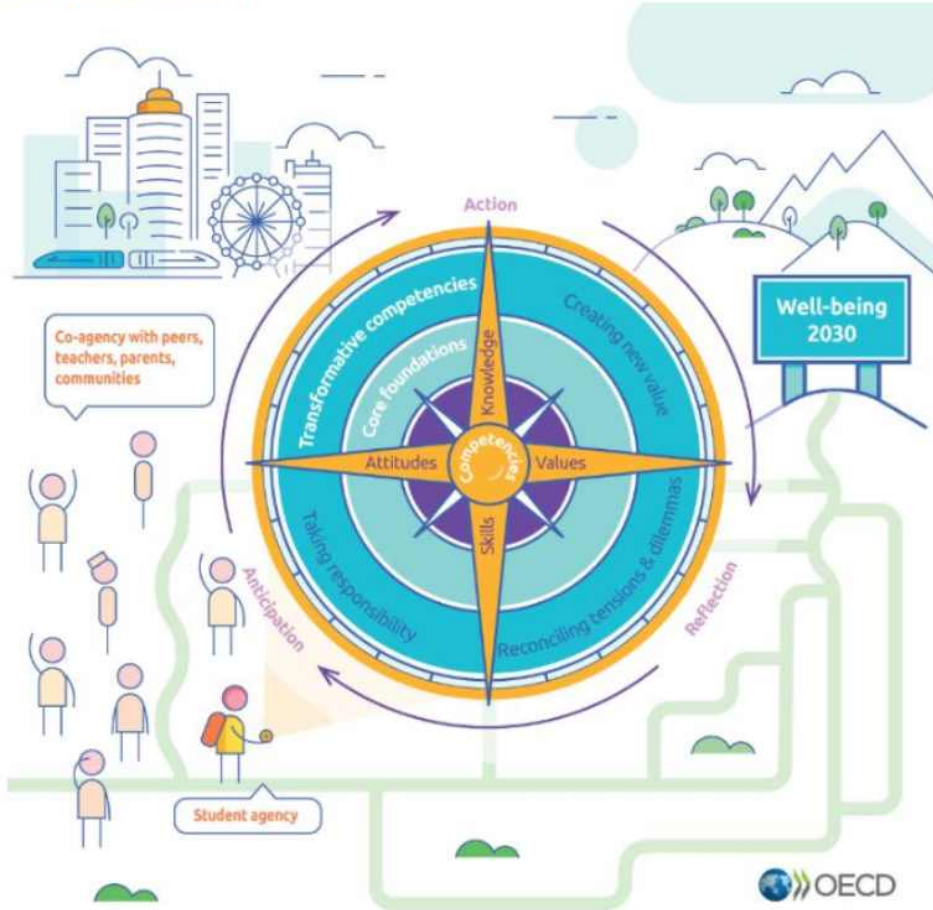
5) 한승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MZ세대 통일교육 방향 모색」, 『평화학연구』 23-2, 한국평화연구학회, 2022.

6) 한승호, 앞의 글.

〈그림 1〉 OECD 학습나침반 2030<sup>7)</sup>

The OECD Learning Compass 2030 is a learning framework that aims to help students navigate towards future well-being. It creates a common language about broad education goals.

>> [Click here to find out more](#)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래사회를 위해 학생(student agency)에게 필요한 주요 능력은 ‘변혁적 역량’으로서,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는 것(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책임감을 갖는 것(taking responsibility) 등의 세 가지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은 이러한 3가지 역량들을 스스로 갖추도록 설정되며, 이러한 역량들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식(knowledges)은 물론, 능력(skills)과 태도와 가치(attitudes and values)까지 필요로 한다. 능력에는 사회적 감각도 포함되며, 태도와 가치의 경우에는 개인은

7) OECD,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2019.

물론 지역적, 사회적, 국제적 수준의 가치도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은 비로소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OECD의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젝트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혹은 미래의 대학생은 중, 고등학교에서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해 온 세대라는 점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이들이 학습해 온 변혁적 역량, 즉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 "동료와 협력적 행위를 통해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 강화와 연계되어 구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변혁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통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혹은 '남북한과 동북아의 긴장과 딜레마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 혹은 능력은 무엇일까요'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 혹은 '통일은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와 같은 당위적 혹은 단순 제언적인 가르침과 같은 강의식 수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상황, 한반도 정세, 통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확고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불확정적인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단단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2. 대학생 통일교육 방식의 교육철학적 근거

대학에서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에 기반을 둔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의 강의는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소통되지 않는 교육방식'으로 여겨져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의를 함양하는 데 한계를 지니는 일회성이고 단기적 평화·통일교육도 지양되어야 할 방법론이다.

최근 이러한 세대 특징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구성주의 방식과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참여 소통형의 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방식이다. 1990년부터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구성주의, 주제중심 학습, 협력학습 등의 교육방식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젝트 학습은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경험한 대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익숙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구성주의 방식

기존의 학습 이론은 객관주의 학습 이론이었다. 객관주의에 따르면, 지식이 이미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의 주된 방식은 실재적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지식이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sup>8)</sup>

구성주의 학습은 교육계에서 1990년대부터 주요한 학습이론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으며 최근 주제중심 접근법, 참여 소통형 협력 수업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외부의 실재하는 지식을 강조하는 객관주의와 비교하여 구성주의는 지식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해석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객관주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로서의 지식 자체를 강조하는 반면에 구성주의는 개개인이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sup>9)</sup>

따라서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을 이끌어 가는 중심은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이며, 교수자는 학습자가 의미를 잘 구성해 낼 수 있도록

8) 구성주의는 개인의 내적 인지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개인의 내적 인지작용에 더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합쳐져 지식을 구성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되는데(강인애,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간략한 고찰, 『교육공학연구』 11-2, 한국교육공학회, 1995), 두 구성주의 모두 통일교육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김은정, 「구성주의 전략을 활용한 '발표 후 비평문 쓰기' 연구, 『문화와 융합』 97,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sup>10)</sup> 그러나 교수자는 학생들이 개념을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즉 대상이 되는 지식을 잘 구성할 수 있게끔 관련 학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sup>11)</sup> 이러한 토대가 잘 갖추어진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자는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 해결 역량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 나. 퍼실리테이션 및 참여 소통의 방식

구성주의 학습은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협동하고 소통하는 수업 방식에 적합하다. 협동과 소통의 방식에 어울리는 최근의 학습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다. 퍼실리테이션이란 “쉽고 간편하게 함”이라는 뜻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당 과제를 효율적으로 촉진·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퍼실리테이션은 구성원들이 다채로운 생각을 제시하고 이를 하나의 결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요구한다. 특히,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 및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퍼실리테이션은 복잡한 문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도적으로 해결책 및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의 동아리 회의, 기업의 기획회의, 정치적 합의의 과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집단이 모여서 문제를 정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집단의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만들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촉진할 주체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하며,

10) 김은정, 앞의 글.

11) 최승규, 「구성주의 학습모형의 통일교육 적용가능성」,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5, 한국시민윤리학회, 2002.

퍼실리테이터는 성인학습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촉진자이자 학습자들의 동기유발자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학습이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복잡한 문제인 통일관련 학습을 수행할 때 용이한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합의안을 수립하고 통일비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퍼실리테이션의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대학교육에서 교수가 바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 방식과 퍼실리테이션을 결합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대학생 통일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합의안을 수립하고 통일비전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수업방식이 될 수 있다.

### Ⅲ.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의 적용 방안

#### 1. 제주형 대학생 통일교육의 방향성

- 1) 제주 지역 청년세대가 원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방법론적 방향성: 제주만의 독특한 자원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2021 한라백두 청년 지도자 프로그램’과 ‘2021 JDC-민화협, 제주민화협 청년 평화심포지엄’을 통해 알아본 제주 지역의 청년세대가 원하는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다.

---

12) 김지영, 「참여소통형 통일교육 방법론 연구: 퍼실리테이션의 적용방안」, 2017년 통일·북한 연구 최종보고서. 통일교육원, 2017.

〈표 1〉 제주 지역의 청년세대가 원하는 통일교육의 방향<sup>3)</sup>

제주 지역 청년세대가 원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p>첫째, 제주 지역 청년들은 북한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주도 대학 내의 프로그램의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공동의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여 학점 및 수업의 교류, 남북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통일토론회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p> <p>둘째, 제주 지역 청년들은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사업, 제주마늘 임가공 사업, 흑돼지 농장 지원 사업과 같은 제주도의 오랜 협력사업은 물론, 한라·백두 교차 관광여행, 우도 땅콩의 개발, 제주한달함께살기 프로그램, 4·3과 6·25 전쟁 등과 같은 과거의 트라우마 및 아픔을 기억하는 다크 투어리즘과 같은 제주의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통일교육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p> <p>셋째, 제주 지역 청년들은 청년세대에 익숙한 OTT 플랫폼을 비롯하여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p>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 지역 청년들은 북한의 같은 세대인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있으며, 과거 제주의 대북사업을 청년세대에 익숙한 SNS, OTT, 메타버스 등의 형식을 빌려 보다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제주형 통일교육의 개념을 제시한 변종헌 교수는 “제주형 통일·평화교육을 위해서는 평화나 통일과 관련된 제주 지역의 다양한 사이트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재발견과 재해석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sup>14)</sup>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통일 콘셉트에 기초하여 학생 스스로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미래세대의 통일의식과 역량을 강화함은

13) 제주통일미래연구원, 「2021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2021, 119-123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외, JDC-민화협, 제주-민화협 청년 평화심포지엄 「청년이 만드는 평화, 제주가 만드는 화해」, 2021, 13-70쪽의 내용과 박성근, 「제주지역 청년세대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제주도연구』 58, 제주학회, 2022, 326-328쪽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14) 변종헌, 제주형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워크숍 “제주형 평화·통일교육 2.0- 제주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도전”, 전문가 세션 I-발제 I 「제주형 평화·통일교육의 의의와 내용체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2022. 20쪽.

물론, 미래세대에게 익숙한 메타버스, VR, SNS 등을 제주의 관광자원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통일교육에 접목한다면 분명 제주다운 청년세대 대상 통일교육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이러한 청년세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제주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이 2회째 공동 개최하고 있는 ‘제주 지역 청년 평화·통일 콘텐츠 대회’이다. 이 대회는 3-4명의 학생들이 제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통일과 관련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5분 이내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는 제주지역의 통일 관련 콘텐츠를 대학생들이 직접 발굴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관심사에 부응하면서도 제주지역만의 개성 있는 통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제주통일교육센터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주지역 청년 통일·평화 프레젠테이션 공모전’이다. 이 대회는 제주지역 통일관련 자원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앞의 사례와는 달리, 3~4인으로 구성된 대학생 팀이 한반도 통일·평화와 관련된 주제로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프리젠테이션 발표 대회이다. 총 6개 팀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 제주지역의 청년들이 이색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행사 및 심사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의 대회가 영상 제작을 통해 제주지역의 통일자원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대회는 통일자원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대회 모두 학생들이 동료들과 협력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통일자원을 직접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방법론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5) 변중헌, 앞의 책, 21-23쪽.

## 2) 제주형 통일교육의 내용적 방향성: 창의적 전환과 미래지향의 통일교육

제주가 가진 역사자원, 관광자원,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지위, 감귤 보내기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 최근의 5+1 사업 제안과 같은 콘텐츠는 제주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자원은 역사, 관광, 문화자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제주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색깔과 개성을 지닌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의 독특한 신화 이야기, 일제 강점기 및 4.3 사건 등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철학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주만의 역사자원들, 한라산, 꽃지왓을 비롯한 산림자원 및 바다생물, 해녀 등과 같은 바다자원을 비롯한 관광자원, 제주 관광 산업과 연계된 문화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주의 역사자원, 관광자원, 문화자원과 같은 거대한 자원들에 대한 보다 미래지향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자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해석할 때 청년세대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감귤 보내기 사업을 역사 속의 단순한 한 장면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고, 리뉴얼 플랜(renewal plan)을 통해 보다 생동감 있게 재탄생시켜 제주의 새로운 미래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대학생들 차원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2022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졸업작품전에서 굴피를 활용한 브랜드 & 프로모션 디자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졸업작품전에서 함성준, 오종욱 디자이너는 프로젝트의 배경으로, “제주 감귤의 경쟁력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제주 감귤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감귤의 대체 자원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라져가는 감귤이라는 자원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굴피를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기획하였다 (2022 국립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32회 졸업작품집).”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HAMONT’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이는 자식과 손녀, 손자들에게 항상 제일 좋고 믿을 수 있는 것만 주는 할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탄생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이며, 굴피로 만든 천연 주방세제, 세탁세제, 손세정제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리고 나아가 ‘정직한 감귤 농가’를 소개하는 브랜드 웹사이트도 직접 개설하여 제주 농가가 친환경적으로 감귤을 재배하는 사진 등을 올려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시도하였다(2022 국립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32회 졸업작품집).

감귤 보내기 사업의 재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현대적 관점, 경제적 관점, 미래적 관점, 청년세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점에 맞게 리뉴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학생들이 함께 감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상 프로젝트, 즉 함께 감귤 브랜드를 런칭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회의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흥미와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역사적 자원에 대한 생각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주에는 신화가 풍부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제주대 산업디자인학부 졸업생들의 아이디어는 여기에 차용하기 적절해 보인다. 이들은 삼승할망, 천지왕, 대별왕, 소별왕, 도채비, 자청비, 영등할망 등을 캐릭터로 하여 어드벤처 AR 게임을 접목시킨 ‘포켓신화 게임’ 어플과 팝업스토어의 기능이 담긴 웹을 제작하였다 (2022 국립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32회 졸업작품집).

이러한 프로젝트를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수행한다거나, 혹은 남한의 대학생들이 북한의 신화를 알아보고, 북한 신화 관련 게임을 제작한다거나, 혹은 남북한 대학생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서로의 신화를 알

아기는 내용으로 대화 혹은 토론하는 모형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역사적 및 관광 자원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탐라문화』 『제주도 연구』 『한국도서연구』 등의 학술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술지에는 이미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관광 상품 개발, 제주항일기념관에 항일독립운동자료 아카이브 구축, 독립운동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등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으며,<sup>16)</sup> 21세기 해양 시대의 전진기지이자 유라시아 해양도시 네트워크의 결절점 역할로서의 제주에 어울리는 해양관광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도 전개되어 있다.<sup>17)</sup>

이 외에도 관련 연구가 많이 선행되어 있는 만큼, 남북 학생들이 이러한 논문들을 검토한 후, 이를 제주 관광상품 콘텐츠로 개발하는 작업을 가상적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것을 대학생 통일교육에 적용한다면, 대학생 입장에서는 통일의식 함양은 물론 제주지역의 역사 및 관광 자원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2. 제주형 대학 평화·통일교육의 실제 적용방안

### 1) 프로젝트 수업에 기반한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 수업 방안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주형 대학생 통일교육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의 적용방안은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4학년 1학기 학부수업인 ‘통일교육론’ 수업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1학기 수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며, 앞

16) 강만익,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탐라문화』 57, 탐라문화연구원, 2018.

17) 이용규, 정민의,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제주도 해양관광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한국도서연구』 30-1, 한국도서학회, 2018.

서 논의한 구성주의, 퍼실리테이션, 제주지역 청년세대가 원하는 통일교육의 방법적 방향성, 제주형 통일교육의 역사, 문화, 관광과 같은 내용적 방향성을 모두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수업 인원을 12명 정도로 가정한다면, 하나의 조가 4명으로 구성되며, 총 3개조로 나뉘어 제주지역의 남북교류협력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이를 발표하는 수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3개조의 각각의 주제는 “1조: 남북한 신화 함께 알아가기(역사적 자원)”, “2조: 감귤 보내기 사업 2.0(산업·문화 자원)”, “3조: 남북한 한라·백두 대학생 교류 탐방(관광 자원)”을 선정하기로 한다. 통일교육론 수업의 전반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프로젝트 수업에 기반한 제주형 대학 통일교육 수업 방안<sup>18)</sup>

수업 구성	수업 내용
교수의 수업 안내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주차 수업에 대한 전반적 설명</li> <li>• 학습자의 능력과 성향 분석</li> </ul>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학습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프로젝트 수업 동기 부여 및 중점사항 안내</li> </ul>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분단 원인 및 과정,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소개</li> <li>• 남북한 통일정책 및 교류협력의 역사 설명</li> <li>• 제주의 선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역사 안내</li> </ul>
학습자 주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 소개</li> <li>• 조별 프로젝트 중간 점검 피드백 안내</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 학생 피드백</li> <li>• 교수의 피드백 및 평가</li> </ul>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교수는 15주차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수준, 학생들의 통일 프로젝트 수행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를 편성한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우수 작품을 제출한 조는 향후 제주통일교육센터, 제주통일미래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대학생 통일

18) 김은정, 「구성주의 전략을 활용한 ‘발표 후 비평문 쓰기’연구」, 『문화와 융합』 44-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3쪽의 ‘표 1. 구성주의 전략을 활용한 학습 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의식 함양 PPT 대회 혹은 영상 콘텐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는 프로젝트의 취지가 제주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청년세대의 특징에 부합하도록 재해석 혹은 리뉴얼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후, 교수는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적인 강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과 최근의 한반도 정세, 제주의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과정을 강의하고, 제주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통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예를 들어, 통일 영상 콘텐츠 대회 혹은 PPT 대회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각 조는 총 5주차 15시간을 사용함으로써 PPT 20분 분량 혹은 영상콘텐츠 10분 분량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산출한다. 학생들이 조별 프로젝트 발표를 구상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는 학생들이 해당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보충 설명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학생들의 협업을 촉진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귤 보내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힘든 경우, 앞서 소개된 HAMONI 감귤브랜드 사업 같은 발상의 전환 사례를 제시하여 주거나, 제주 신화 콘텐츠의 게임 개발 가능성 같은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자극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조별 프로젝트의 전체적 흐름은 (1) 교수 강의, (2) 3차례에 걸친 조별 프로젝트 기획회의와 교수 및 동료 피드백, 토론, (3)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제주지역 현장답사, (4) 조별 프로젝트 발표와 평가, (5) 종합

19) 보다 완전한 형태의 구성주의 및 퍼실리테이션의 방식에 근거한 수업이라면, 이러한 강의식 수업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챗GPT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먼저 해당 학습 내용을 숙지하는 방법 혹은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예비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평가회의 순서로 진행된다.

## 2) 통일교육론 주차별 수업계획서

통일교육론 주차별 수업계획서는 <표 3>과 같다.

<표 3> 2023년 1학기 통일교육론 주차별 수업계획서

주차	수업 계획	수업방식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안내 오리엔테이션</li> <li>평화·통일관련 프로젝트 수업 진행 전반 설명 및 조 구성</li> </ul>	교수강의
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리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역사(1시간)</li> <li>역대 통일방안 설명(2시간)</li> </ul>	교수강의
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분단 원인 및 과정(1시간)</li> <li>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소개(2시간)</li> </ul>	교수강의, 전문가초청강연
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교류협력의 역사(1시간)</li> <li>제주의 선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역사 안내(2시간)</li> </ul>	교수강의, 전문가초청강연
5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형 대학생 프로젝트 활동 사례 제시(1시간)</li> <li>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2시간)</li> </ul>	교수강의, 현장교사초청강연
6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활동: 조별 프로젝트 기획회의 1차(1시간), 교수피드백 및 안내(1시간), 동료피드백 및 종합토론(1시간)</li> </ul>	조별활동, 교수 및 동료 피드백
7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활동: 조별 프로젝트 기획회의 2차(1시간), 교수피드백 및 안내(1시간), 동료피드백 및 종합토론(1시간)</li> </ul>	조별활동, 교수 및 동료 피드백
8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제주지역 현장 답사 1차(3시간)</li> </ul>	사진 및 영상촬영
9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활동: 조별 프로젝트 기획회의 3차(1시간), 교수피드백 및 안내(1시간), 동료피드백 및 종합토론(1시간)</li> </ul>	조별활동, 교수 및 동료 피드백
10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제주지역 현장 답사 2차(3시간)</li> </ul>	사진 및 영상 촬영
1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조 발표, 동료 및 교수평가(1시간)</li> <li>2조 발표, 동료 및 교수평가(1시간)</li> <li>3조 발표, 동료 및 교수평가(1시간)</li> </ul>	조별활동, 교수 및 동료 피드백
1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고등학교 도덕과 통일관련 단원 분석 및 수업계획에 관한 방안 강의 및 토론(3시간)</li> </ul>	교수강의, 학생 토론
1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고등학교 도덕과 통일관련 단원 수업의 실제(3시간)</li> </ul>	현장초청강연, 학생 토론
1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각 조 프로젝트 발표(1시간)</li> <li>종합 평가회 및 토론(2시간)</li> </ul>	조별활동, 교수 및 동료 피드백
15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말고사</li> </ul>	

1~5주차까지는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윤리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역사에 대한 기초적 학습을 하고, 남북한의 분단 원인과 역대 남북한의 통일방안, 그리고 최근의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와 정세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학습한다. 또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사업의 역사와 제주의 선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조별 3차례의 프로젝트 활동과 2차례의 현장답사, 1차례의 발표와 평가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프로젝트 수업으로서 과정중심평가를 진행하는 관계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장답사로 실시한다. 단, 기말고사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15주차에 실시한다. 12주차, 13주차는 본 프로젝트 수업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향후 중등학교에서 통일관련 단원을 가르쳐야 할 윤리교육과 학생들인 만큼, 통일교육론 수업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내용으로 계획된다. 물론 대학생들은 향후 중등학교 통일수업에서 자신들이 학습한 제주형 통일교육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주차에는 동료들과 교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프로젝트 수행물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종합 평가회를 가짐으로써, 프로젝트를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출석 10%, 프로젝트 동료평가 20%, 프로젝트 교수평가 50%, 1차례의 지필평가 20%로 구성된다.

### 3) 3조 주제 “남북한 한라-백두 대학생 교류 탐방 프로젝트” 수업의 예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통일미래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에서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1, 3학년으로 구성된 참가팀<sup>20)</sup>이 발표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하는 제주 지역 통일탐방” PPT 프로젝트 발표 과정을 수정·보완하여 본 수업에

20)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고경민 외 4명이 참여함.

획 3조의 주제인 “남북한 한라·백두 대학생 교류 탐방 프로젝트” 수업의 예시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4〉 “남북한 한라·백두 대학생 교류 탐방 프로젝트” 수업의 예시

수업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수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기상 통일직전으로 가정하고, 남북한 청년들의 교류 사업을 구상해볼 것을 설명</li> <li>(2) 북한 대학과 사범대 체제 소개</li> </ol> </li> <li>교수강의 후 학생 사전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주 대학생의 북한 방문도 좋지만, 북한 대학생의 제주 방문이 제주형 통일교육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li> <li>(2) 김정숙 사범대 등 여러 사범대학이 있지만 북한 최초의 사범대라고 할 수 있는 김형직 사범대학을 선정</li> </ol> </li> </ul>
조별프로젝트회의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촉진활동: 제주 관광지 소개뿐만 아니라, 통일교육과 관련된 남북한 대학생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li> <li>학생조별회의: 사범대학생 간의 교류인 만큼, 관광지 방문을 2, 3회 정도로 하고, 통일교육 교생실습과 제주포럼 일정을 추가하기로 결정</li> <li>회의 결과물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 교생실습과 제주포럼 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으며, 교생실습 수업의 대략적 틀을 구상해 볼 것을 권유</li> </ul>
조별프로젝트회의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촉진활동: 통일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 일상적으로 남북한 대학생이 함께 지내는 생활을 가상적으로 구상하는 것 자체가 평화·통일교육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li> <li>학생조별회의: 남북한의 생활차이, 즉 음식과 언어 등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일정을 추가하기로 결정, 북한-제주 방언대회, 남북한 음식만들기 경연 같은 행사 추가.</li> <li>회의 결과물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 남북한 음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li> </ul>
조별프로젝트회의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촉진활동: 남한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예를 들어 SNS 사진업로드 등의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을 추천</li> <li>학생조별회의: 제주만의 독특한 관광 및 문화자원인 오름에 함께 올라 인생샷을 찍어 함께 SNS에 업로드하는 일정을 추가하기로 결정</li> <li>회의 결과물 피드백: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 대한 전반적 격려</li> <li>동료 학생들의 피드백: 젊은 세대들의 취미인 캠핑을 일정에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li> </ul>
현장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활동: 평양냉면 식당, 메이즈 랜드, 안돌오름 방문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 처리 및 답사 인솔</li> <li>학생활동: 메이즈 랜드의 미궁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분단민족에서 한민족으로 나아감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을 구상</li> </ul>
프로젝트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목: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하는 제주지역 통일 탐방</li> <li>2. 주제선정 배경: 제주도의 과거 감귤 보내기 사업의 현대적 계승 및 젊은 세대의 니즈에 부합하는 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정</li> <li>3. 통일탐방의 여정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PPT 발표</li> <li>4. 통일탐방의 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날 : 오메기떡, 제주 마음샌드 등을 웰컴 선물로 증정, 제주 평양냉면 집</li> </ul> </li> </ol>

	<p>에서 함께 식사하며 북한의 음식이 남한에도 있음을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째날 : 오전 윤리교육과 4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교생실습 함께 참여하여 중학교 대상 남북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시(‘귤당’, ‘벨롱벨롱’ 등 제주 방언퀴즈대회와 ‘무잡이’, ‘송아지 동무’ 등의 북한 방언퀴즈대회를 함께 진행)</li> <li>• 둘째날 오후 : 메이즈랜드 애지앙 미로에서 함께 미로를 탈출하며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날 오전 : 제주포럼에 참여하여 남북청년 교육교류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li> </ul> </li> <li>• 셋째날 오후 : 몽딱 게스트하우스에서 인조 고기밥, 두부밥 등의 북한 음식과 몸국, 갈치조림 등 제주 음식을 각각 대학생들이 만들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li> <li>• 넷째날 오전 : 안돌오름에 함께 올라 땀을 흘리고 인생샷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공유함</li> <li>• 넷째날 오후 :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며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함.</li> </ul>
<p>종합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종합평가: 남북한 교류와 관련 제주의 관광교류가 다크투어리즘을 넘어, 대학생의 관점에서 생기발랄한 제주탐방을 구상함으로써 피스투어리즘, 나아가 미래투어리즘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을 격려</li> <li>• 참가조원소감: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이 그리 어려운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통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음.</li> <li>• 동료 학생들의 평가: 남북한 학생들이 서로 제주지역을 관광하는 컨셉이 매우 좋았지만, 남북한 학생들 간의 진솔한 대화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 점을 보완한다면 좋을 것 같음. 진실게임과 같은 게임을 자연스럽게 넣어보는 것도 좋았을 것으로 판단됨.</li> </ul>

위와 같이 남북한 대학생들이 2박 3일간 제주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남북한 문화적 접점들을 공유하고, 같은 사범대 학생으로서 교육실습에서 통일관련 주제를 함께 다루며, 제주포럼과 같은 제주지역 국제회의에도 참가하는 경험을 나누는 가상적 계획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윤리교육과 학생들은 제주의 특색은 물론 청년세대의 니즈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평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상적 프로젝트를 메타버스의 형태로 발전시키거나 SNS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수업을 유도한다면 대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기반의 평화·통일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프로젝트 수업 적용방안은 대학생들이 초, 중, 고에서 경험하였던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승계하였고, 제주지역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 사업들(평화·통일 콘텐츠 대회,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양성, 제주통일교육센터 PPT 발표대회 등)과 연계되어 기획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평화·통일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교와 지역사회의 단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완의 계획과 제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실천과 후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맺음말에 갈음하여 본 연구의 실천에 있어 몇 가지 과제 및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성주의, 협동학습에 입각한 프로젝트 수업이라 하더라도 강의식 수업의 장점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프로젝트 수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VN의 “별거벗은 세계사”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전문가인 전공 교수들이 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배경과 같은 내용을 퀴즈, 참고 영상, 패널들의 유머러스한 진행 등을 활용하여 매우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이고 주제중심적인 협력수업이 강의식 수업과 결합되어 조화를 이룰 경우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 제주와 북한의 신화 함께 알아가기, 남북한 대학생 교류탐방과 같은 프로젝트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교수자가 강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학생들의 프로젝트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제안한 프로젝트 수업방식은 윤리교육과에 한정되어 개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론적 전문성에 따른 창의적 상상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과별 컬래버레이션 (collaboration)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범대학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과별 융합수업은 향후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게 될 미래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비롯하여 개별적 학과 수업보다는 융합적 성취기준에 따르는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사회과대학의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의 학과들이 통일과 관련한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다면, 통일 관련 융합적 수업 역량을 갖춘 예비 중등 교사 양성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내에서 평화·통일교육은 초등윤리전공과 윤리교육과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양과목으로 몇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신청자 부족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융합 수업은 더욱 많은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에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주지역 대학교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협력과 예산안 편성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를 발현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각종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통일교육이 전공이 아닌 교양과목으로 개설될 필요가 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교양과목에서 통일 관련 수업 수강 동기를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익,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탐라문화』 57, 탐라문화연구원, 2018.
- 강인애,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간략한 고찰」, 『교육공학연구』 11-2, 한국교육공학회, 1995.
- 고성준 외,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도서출판 너나들이, 2018.
- \_\_\_\_\_,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학술보고서 『제주 미래세대의 통일·평화의식 함양 방안 연구』, 제주통일미래연구원, 2022.
- 국립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32회 졸업작품집, 2022.
- 김은정, 「구성주의 전략을 활용한 ‘발표 후 비평문 쓰기’ 연구」, 『문화와 융합』 44-9,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 김지영, 「참여소통형 통일교육 방법론 연구:퍼실리테이션의 적용방안」, 2017년 통일·북한 연구 최종보고서, 통일교육원, 2017.
- 박성근, 「제주지역 청년세대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제주도연구』 58, 제주학회, 20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 변종현, 「지역 기반 통일교육의 개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윤리연구』 1(127), 2019.
- \_\_\_\_\_, 제주형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워크숍 “제주형 평화·통일교육 2.0-제주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도전”, 전문가 세션 I-발제 I 「제주형 평화·통일교육의 의의와 내용체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2022.
- 이응규, 정민의,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제주도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한국도서연구』 30-1, 한국도서학회, 2018.



- 장성수, 「기획: 제주 '세계평화의 섬' 개발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진흥정책의 과제-관광자원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선 과제」, 『통일한국』 287, 평화문제연구소, 2007.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외, 2021 JDC-민화협, 제주-민화협 청년 평화심포지엄, 「청년이 만드는 평화, 제주가 만드는 화해」, 2021.
- 제주통일미래연구원, 「2021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2021.
- 최승규, 「구성주의 학습모형의 통일교육 적용가능성」,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5, 한국시민윤리학회, 2002.
- 한승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MZ세대 통일교육 방향 모색」, 평화학연구 23-2, 한국평화연구학회, 2022.
- OECD,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2019.
- 한라일보 기사, “고유성 반영한 제주형 통일·평화교육 이뤄져야”, 2022. 05. 02.
- 한라일보 기사, “대북·통일 정책속 제주 역할은?”, 2022. 08 12.

Abstract

A study on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plans  
suitable for the Jeju region  
– Focusing on Jeju National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Theory’ Lesson Design

Park, Sung-gu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plan for Jeju-style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to be applied to classe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Jeju region h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peace and unification consciousnes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as the tangerine sending project, which was the beginning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was carried out in the past. Based on the newly amende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s a result of the 2018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regional-base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re actively underway. Accordingly, the need for Jeju-type unification education, which is a regional-based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has emerged in Jeju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meet the flow of regional-based unification education by presenting a design plan for unification education specifically targeting college students in the Jeju area.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emphasize the need to reflect social and educational changes in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while examining educational philosophical method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such as constructivism and facilitation. Based on this, in the second half of the thesis, I will propose a topic-oriented project lesson plan that can interpret Jeju's unique resources such as its historical resources, tourism resources, and status as an island of world peace from a new perspective.

Key-words: Jeju-style unification education,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constructivism, facilitati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논문투고일 2023. 2. 27.

심사완료일 2023. 3. 17.

게재확정일 2023. 3. 22.